

■ 괴운(槐雲) 칼럼



문경지교(勿頸之交)와 시도지교(市道之交)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어느새 2024년 갑진(甲辰)년 새해를 맞이 하였다. 새해 첫날에 친구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어느 연구소에서 장수한 사람은 친구 수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니며 친구의 유형도 각각씩이다.

우선 고사성어(故事成語)에 나오는 친구도 여러 종류이다. 문경지교(勿頸之交), 관포지교(管鮑지교), 금란지교(金蘭之交), 금석지교(金石之交), 빈한지교(貧寒之交), 지란지교(芝蘭之交), 막역지우(莫逆之友), 시도지교(市道之交), 주식형제(酒食兄弟) 등이 있다.

먼저 중국 전한(前漢)시대 사마천(司馬遷: BC145-BC86)의 사기열전(史記列傳) 열파(廉頗) 인상여(藺相如) 열전에 문경지교(勿頸之交)와 시도지교(市道之交)가 나온다.

문경지교는 생사를 같이하는 벗이다. 인상여는 조(趙)나라 혜명왕의 충신 목현의 식객이었으나, 초(楚)나라 화씨(和氏)의 보물인 구슬을 지킨 공로로 상대부 높은 벼슬에 이어 상경(上卿) 자리까지 얻었다. 그러자 당시 조나라 명장(名將)인 열파(廉頗)가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오른 인상여에 격분해 제 거하려 하자, 인상여는 열파를 피했다. 인상여 부하들은 그런 인상여의 태도에 불만을 품자, 인상여는 "지금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침범 못하는 것은 열파장군과 나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니, 국가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원한은 뒤로 생각하기 때문이요."라고 하자 부하들은 크게 감동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열파장군도 크게 뉘우치고 인상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두 사람은 문경지교를 맺고 죽는 날까지 일신동체(一身同體)같이 지냈다 한다.

한편 그와 반대 뜻인 시도지교(市道之交)란 말이 나온다. 이는 평소 식객이 많았던 열파장군이 진(秦)나라와 싸움에서 패하여 벼슬에서 물러나자 열파 식객들이 모두 그를 떠났다. 그런데 얼마 후 열파가 다시 등

장하자 식객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이와 같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며 구차스러운 짓을 하는 일을 아우구용(阿諛苟容)이라 하며, 시장과 길거리의 장사꾼처럼 단지 자기 이익만을 위한 교제나 이해득실에 따른 진실하지 못한 사귀는 시도지교(市道之交)라 한다.

그리고 사기 관중열전(管仲列傳)에 '관중과 포숙의 사귀어라 뜻'으로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친구 사인인 관포지교(管鮑之交)가 나온다. 춘추전국 시절에 제(齊)나라에 집이 가난한 관중(管仲) 관이오(管夷吾)와 부유한 포숙아(鮑叔牙)가 살았는데, 이 포숙아는 어릴 때 관중과 장사를 같이하면서 관중에게 많은 이익을 주면서도 탐욕스럽다고 보지 않았고, 관중이 일을 잘못해도 여러 석다고 하지 않았고, 관중이 세 번 벼슬에서 쫓겨나도 어리석다 하지 않고, 전쟁에서 세 번 달아나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중이 감옥에 갔을 때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관중도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 선생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라 하면서 포숙아를 극찬하였고, 두 사람은 제나라를 다스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 밖에도 금이나 돌같이 사귀어 굳고 변함없는 관계를 금석지교(金石之交), 친구 사이가 쇠보다 굳고 향기가 난초 같다는 금란지교(金蘭之交), 깨끗하고도 맑은 벗 사이의 교제인 지란지교(芝蘭之交),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 수어지교(水魚之交), 가난할 때의 참다운 친구라는 빈천지교(貧賤之交)와 빈한지교(貧寒之交) 등이 있다.

한편 '명심보감' 교우편(交友篇)에 '주식형제천개유(酒食兄弟千個有), 급난지봉일개무(急難之朋一個無)'란 말이 있다. 이는 공자가 한 말로 '술 먹고 밥 먹을 땐 형, 동생 하는 친구가 천 명이나 있지만, 급하고 어려

울 때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사귀는 벗을 보라고 했다. 현재 나의 친구들이 주식형제(酒食兄弟)인지, 급난지봉(急難之朋)인지,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속담에 "정승 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고, 정승이 죽으면 텅 빈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 세상이란 열량세태(炎涼世態)라서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만, 몰락할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 글귀처럼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듯이,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친구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누기도 한다. (1) 자기가 좋을 때만 찾는 꽃과 같은 친구인 화우(花友) (2) 자기 이익에 따라 저울과 같이 움직이는 친구인 추우(鍾友) (3) 안식처와 다른없는 산과 같이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인 산우(山友) (4) 언제나 한결같은 땅과 같은 친구인 지우(地友)이다. 그리고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는 공자가 제시한 친구의 세 가지 기준이 나온다. 우익한 세 친구인 익자삼우(益者三友)는 (1) 정직한 사람, (2) 신의가 있는 사람, (3) 견문이 많은 사람이다. 반면 해로운 세 친구인 손자삼우(損者三友)는 (1) 아첨하는 사람, (2) 쫓대 없는 사람, (3)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이라 하였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주위에 마음을 기릴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 좋은 친구를 얻는 일은 전적으로 자신에 달려 있다. 과연 '참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나의 참된 친구는 몇 명일까? 앞으로 안동권문들도 자신부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친구인가 살피고 더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고, 역사적 고증을 그 시점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고백한다.

시인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충정 못지않게 뿌리에 대해서도 애정이 남다르다. 나의 근본은 조상이다 라는 시를 통해 뿌리의 중요성을 설화한다. 조상은 나의 근본 예로서 존경하면/뿌리가 튼튼해서 꽃피고 열매 맺어/순리는 하늘의 법칙 지성이면 흥한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문학은 신변잡기와 응봉농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나라의 현실이 불확실한 시대의 흐름에서 사회와 나라에 참여의 책임이 있다고 일갈한다. 권행안 편집국장

■ 이달의 책

한강(漢江)

/ 권오학

화산(華山) 권오학(權五學) 시인이 '한강' 시조집을 출간했다. 권오학 시인은 봉화가 고향으로 충재(忠齋) 권범(權範, 1478-1548) 선생의 후손이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민족 원류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에 전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詩)의 주제들이 백두산, 압록강, 탄금대, 제3땅굴, 탄



이 대부분이다. 김홍열 시조시인이 시인의 작품을 일독하고 평론에서 마치 우국지사의 시를 읽고 있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다. 시인은 진실을 표현하고자 현장을 찾아보

생활속의 한방건강



본질적 이해

1. 공통점과 차이점
학창시절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렀다. 시험문제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문제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사물들에 관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답을 내기 위해 관찰이나 연구를 하다보면, 서로 달라 보이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보게 되거나, 서로 같이 보이는 사물들에 대하여 차이점을 알게 되는 능력이 향상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들을 우선 크게 넓게 또한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이 되어, 우리는 생활이나 직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대략 정리정돈이 되어 원리적이거나 보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적절한 해결시점으로 임하게 된다.

2. 현상(現象, Phenomenon)과 본질(本質, Essence)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탐구는 그러한 요인들을 분류하는 범주(category)에 의하여 그 효용은 크게 달라진다. 그 분류범주는 우리의 지식이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 하나로 현상과 본질로 대상물을 바라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 현상은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양이나 상태로, 철학적으로는 본질이나 실제의 외형적인 것을 뜻한다.

본질은 현상의 본바탕이 되는 고유한 성질이나 모습으로, 철학적으로는 현상 안에 있는 실체이다. 이 본질은 대체로 소중한 것을 담고 있으며, 하나의 본질은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동양철학에서 음과 양의 본질은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목·화·토·금·수의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바꾸어 말해서 오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본질은 음·양으로 단순하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

현상은 감각을 통해 볼 수 있으므로 알아차리는 것이 비교적 쉽다. 반면에 본질은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아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질을 알거나 보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성찰이 필요하다.

3. 인식(認識, Cognition)과 인지(認知, Cognitive)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본질에

권희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인양지역중치회원
3축관절스윙 골프아카데미 원장

서 생성 또는 파생되어 현상으로 나아가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현상으로 부터 본질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사유의 과정은 우리들의 의식을 높여 준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알아채는 인식은 감각기관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입력하게 된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각이라 한다.

이러한 지각활동은 현재의식 안에서 진행되는데, 현재의식은 현재의 마음이며 또한 깨어있는 마음이며, 이를 인식이라고 한다. 즉 인식이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지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가끔 말해지는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지각과정 중에 역사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식 과정이 주로 감각에서 시작되다보니,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본질이나 원인 등을 간과하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어떤 사실이나 상황 등이 쉽게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인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안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지각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거나 저장되는 것을 아는 것'을 인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어휘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한층 더 본질적으로 깊게 이끌어준다.

4. 핵심적 지식과 높은 가치의 인지
지각의 대상에 대한 또 한 번의 인식은 기억속의 틀이 되는 기억에 저장된 정보 덩어리인 스키마(schema)에 덧붙여져 저장되어 우리의 인지가 강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기억정보들을 지배하는 스키마가 고착성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입력된 정보들을 기존 기억 속에서 정보덩어리를 일정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인식의 틀인 스키마는 수많은 정보, 유전지식, 경험 등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몇 개의 새로운 정보가 유



입되었다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드러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인식체계로 스키마를 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적 지식이나 높은 가치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간찰함이나 속성으로 기억 속 스키마가 성숙되어야 한다.

5.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적 이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자세를 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유명한 골퍼의 스윙자세를 보고 그 본질적인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멋진 운동 자세나 골퍼 스윙 폼은 인체운동의 생리와 역학적 원리 하에서 기계적·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산물이다.

훌륭하거나 멋진 사람들의 언행을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의 훌륭한 언행이나 멋진 말을 알아채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당면한 사건이나 상황 등의 현상들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

표면이나 형태에 둘러져 쌓여있는 현상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원리와 본질을 볼 수 있는 지식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습과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매력을 키우고, 익어가는 멋진게 거듭 피어나게 만든다.

〈2024년 1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 12.29. ~ 1.29.
총 납부자 37명
지사·지국 3곳

이름순						단위:원
관광규(경기오산) 30,000	권순봉(경기성남) 30,000	권영범(산청) 30,000	권오현(대구 달서구) 30,000	권지현(대구) 30,000	권황택(안주) 30,000	
권광순(대전) 30,000	권순선(진천) 30,000	권영식(대구 서구) 30,000	권오형(안동) 30,000	권창건(경기성남) 30,000	오오카와 마리고(경기고양) 60,000	
권기덕(안동 태화동) 30,000	권순의(진천) 30,000	권영우(음성) 30,000	권용일(서울구로) 30,000	권창호(서울종로)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대성(서울동대문) 30,000	권순일(경기고양) 30,000	권영태(구미) 60,000	권용진(서울강남) 30,000	권추현(합천) 30,000	강릉총친회 2,000,000	
권성일(성주) 30,000	권순철(서울강동) 30,000	권오준(경기용인) 30,000	권인섭(의성) 30,000	권태환(경기양주) 30,000	마창진총친회 225,000	
권세준(경기광명) 30,000	권순호(대구) 30,000	권오직(안동) 30,000	권재환(안동) 30,000	권혁상(대구) 30,000	안동총친회 200,000	
권순범(청주) 30,000	권순호(서울영등포) 30,000	권오진(안동 무릉리) 30,000	권주석(상주) 30,000	권홍묵(세종)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총 3,595,000원

서울산악회 제334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설 잘 쇠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2월 18일 10시(시간엄수)
- ♣ 장 소 :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 ♣ 산행지 : 안산둘레길
- ♣ 준비물 : 개인 필요장비, 간식, 온수(점심제공)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순희: 010-3797-1874

2024년 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총친회 2월 월례회 안내

회원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2월 월례회는 설 명절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처 : 회장 권영복 010-2456-6865, 사무국장 권경탁 010-3796-4047

2024년 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총친회 회장 권영복